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임 춘 희¹⁾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 여섯 명을 면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참여자들의 면접내용을 사례별로 개방적 코딩을 하였으며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의미단위를 찾아 결혼의 의미의 주제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다문화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혼한 한국인 남성 참여자들은 재혼에 대해 전체적으로 크게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그리고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 재혼에 부여하는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이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인생의 활력소’, ‘일에서의 능력 발휘와 자신감’,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노후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로 나타났다.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신뢰와 소통도 부족하고 돈도 더 들어가지만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결혼’과 ‘동거인에 가깝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 사는 관계’로 나타났다.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 재혼에 부여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다문화가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이다.

주요어 : 다문화가족, 재혼한 한국인 남성, 다문화 재혼, 재혼의 의미

1) 교신저자 :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chlim@kunsan.ac.kr)

I. 서론

현대 후기 산업사회에서의 가족은 개인주의적 가치의 확산과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치의 공존으로 과거에는 예상치 못했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관계상의 변화는 생애과정혁명(life course revolution)이라고까지 표현된다(Skolinick, 2009). 여기에 세계화와 이주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와 민족, 언어와 인종 등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개인들이 결혼하여 이루는 다문화가족 또한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1월 기준으로 외국인 수가 144만 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였으며, 결혼이주와 관련하여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결혼이주자들은 약 23만 명으로 외국인 주민의 약 16%를 차지하였다(안전행정부, 2013.7.2). 2012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즉 다문화결혼은 2만 8천여건으로 8.7%이며 이 가운데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혼인은 2만 6백건으로 72.9%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은 현재 한국 가족에서 수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다문화결혼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고비용의 결혼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혼의 만혼 남성이나 이혼하여 재혼을 희망하는 중년 남성들에게 국내에서 갖기 어려운 결혼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결혼의 유형을 고려해 볼 때 한국에서의 결혼유형은 여전히 남녀초혼이 78.6%(통계청, 2013.4.23)로 지배적이지만 과거에 비해 재혼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재혼의 양상 또한 재혼 중 남녀 모두 재혼이 11.5%로 가장 많은 식으로 변화하였다. 이혼의 증가가 계속되는 한 남녀 모두가 재혼인 재혼유형 또한 많아질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일반 내국인간의 결혼에서 재혼의 비율은 전체 혼인의 21.4%인 반면(통계청, 2013.4.23),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혼인 가운데 재혼은 42.2%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11.21). 특히 이러한 다문화 혼인에서 한국인 남편이 재혼인 경우는 전체 다문화 혼인의 3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결혼은 재혼의 비율도 높으며 특히 한국인 남편이 재혼인 경우가 다문화 혼인의 약 3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재혼비율이 높은 다문화가족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에서 성장하여 재혼한 엄마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재혼 이주여성의 중도입국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녀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해 사회적, 정책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갈등과 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며, 상업적 국제결혼의 부작용과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문제, 결혼이주여성들의 실태와 사회적 지원방안, 그 외에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과 소통의 문제와 한국 사회의 타자성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이근무, 김진숙, 2009). 이러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결혼이주성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한국인 남편과

가족에 의해 인권이 짓밟히는 국제결혼의 피해자이며 한국인 남편과 그 가족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는 문화적, 경제적 강자로서의 가해자이거나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다문화적 이해가 매우 부족한 사람이나, 사회로 간주하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문제중심적인 시각의 연구들이 대다수로 다문화가족의 문제와 위기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모든 다문화가족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문화가족이 갖는 건강성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으며 다문화가족에서 또 다른 중요한 주제인 한국인 남편들의 관점과 경험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인 국제결혼부부는 그들의 차이점을 탐구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강한 친밀감과 상호 이해를 경험할 수 있으며 국제결혼부부들은 이미 서로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출발하였으므로 서로에 대해 이해를 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며 결혼만족도가 높은 장점이 있다(Heller & Wood, 2000). 이 외에도 국제결혼한 다문화가족은 수용성,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한 관용, 개방성, 존중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녀들에게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길러줄 수 있으며 가족내에서의 활력 등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Breger & Hill, 1998; Ho, 1990; Roer-Strier & Ezra, 2006; 윤경자 등,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갖는 건강성이나 긍정적인 측면은 사실상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이 자신들의 현재 결혼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의하면 인간은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환경속에서 사람이나 대상, 사건들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Bruner(1990)에 의하면 우리가 구성하는 자아들과 삶은 의미의 문화 속에 자리한 의미구성과정의 결과로, 개인들이 구성하고 상이한 맥락 속에서 사용하는 의미들은 사람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더 잘 이해하고 미래 사건들을 더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의미구성의 과정은 인지적인 작업이면서도 정서적 반응과 행동적 기대 같은 부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Harvey, Weber, & Orbach, 1990). 의미구성을 결혼관계에 적용할 때 결혼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관계를 이해하고 평가하게 하는 인지적 구조의 일부로(Timmer & Orbach, 2001), 개인이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는 단순히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인지적 구성과정에서 나아가 결혼생활에서의 정서적 반응과 배우자와의 상호작용의 성격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미래의 행동들과도 연관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렛 Gottman (1994)에 의하면 배우자와 결합되어있다는 인식을 하는 남편일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배우자가 결혼에 대해 갖는 의미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각자의 배우자가 결혼에 대해 갖는 이해와 의미부여는 부부관계에 상호영향을 미친다.

다문화가족에서 한국인 남편은 다문화결혼의 주체이면서 결혼의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혼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과 행·불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

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나름대로 가족건강성을 유지하며 생활하는 특히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현재의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는 추후에 다문화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적응행동에 영향을 주는 동기적인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결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하며 실제로 남성과 여성은 같은 결혼생활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점에서 일찍이 Bernard (1973)는 ‘그의 결혼과 그녀의 결혼(his and her marriage)’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남성과 여성은 결혼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고 결혼만족에 대한 인식도 다르기 때문이다(Amato & Rogers, 1997). 특히 결혼에 대한 기대와 이해관계에서 남녀가 현격한 차이를 갖고 시작하게 되는 다문화결혼에 있어서 결혼이 갖는 의미는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편과의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이후 결혼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동성결혼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인 두 사람의 성인이 경제적, 성적,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정서적, 법적, 사회적 책임관계’로 규정되며 특히 제도로서의 결혼은 법적인 관계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결혼의 의미는 자연적인 성향, 사회적 계약, 사회적인 미덕, 종교적 실체, 상호보호와 만족의 다섯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20세기에 들어와서 결혼의 ‘상호보호와 만족’에 대한 차원이 점차 강조되면서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결혼의 기반이 되고 있다(Browning, 2000: 정현숙,

유계숙, 2005에서 재인용). 한국에서도 점차 개인적 차원의 삶의 만족이 강조되면서 상호배려와 만족의 관점이 중요한 결혼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Timmer와 Orbach(2001)는 결혼 일 년 이내 부부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수록 이혼의 위험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재혼자들은 초혼자들에 비해 결혼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이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이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Whitton, Stanley, Markman & Johnson, 2013).

Baxter(2010)는 결혼의 의미를 유럽과 미국문화에서 크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시각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결혼의 의미에 대한 여섯 가지 주요 흐름으로 결혼을 배우자 두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로 보는 것, 대 사회적으로 깊이 뿌리박힌 표면으로 보는 것, 결혼을 개인적 관계로 보는 것, 대 제도로 보는 것, 부부의 사랑을 낭만적 사랑으로 보는 것, 대 실용적 사랑으로 보는 것, 결혼을 헌신의 유대로 보는 것, 대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는 것 그리고 결혼을 두 사람의 개인이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대 하나의 결합체로 간주하는 것, 결혼을 솔직한 자기표현의 장소로 보는 것, 대 자기보호를 위한 재량권을 갖는 장소로 생각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그는 결혼의 의미와 관련하여 주로 개인주의적 결혼 담론에서는 만족이나 적응, 특권과 같은 우애적 기준이 사용되는 반면, 공동체적 담론에서는 의무감을 통한 헌신과 안정성과 같은 제도적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 높은 결혼에 대한 개념은 부부마다 또 배우자간에도 다를 수 있으며 시간과 상황

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배우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결혼을 외부자에게 보여주면서 결혼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잠재적인 유동성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성에게 대한 일반 사람들이나 사회적 인식은 한국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학력이 낮은 나이가 많은 남자들, 결혼을 매매혼적으로 간주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이거나, 사회적 부적응자 혹은 결혼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생활방식을 강요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가출이나 이혼 심지어 자살을 하게 만드는 가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12)은 이와 같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회생자적 관점과 결혼이주여성과 결혼하는 남성에게 대한 가해자적 관점은 일면적인 것으로 종종 매체에 맞추어 연출된 결과라고 한다. 그들은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결코 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며 여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또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해 결혼이주를 선택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울리히 벡 부부는 결혼이주를 평가절하하는 시선이나 불신 어린 거부적 시선에는 애정에 의한 결혼과 목적을 위한 결혼을 구분하는 서구의 자기미화가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갖는 일방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서도 해당될 수 있다.

한국인 남편이 다문화결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먼저 최지영(2009)은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이 갖는 의미를 ‘결혼: 시원섭섭함’, ‘다름에서 오는 어려움: 이해와 오해’, ‘정보와 도움의 부족: 산 넘어 산’, ‘변화와 극복: 그래도 희망을 바라봄’으로 도출하였다. 엄명용(2010)은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한국인 남편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그동안 주변화 되었던 삶에 대한 보상을 받음과 동시에 책임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재탄생을 하게 되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였다. 강향숙, 진은영, 마덕마, 배은경(2013)은 국제결혼한 남성의 결혼적응을 ‘고단한 염부가 멀리 바닷물을 길어와 소금꽃을 피우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외에 이주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생활의 커미트먼트(commitment)와 가족관계지속의사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정영조, 박지선, 윤정수, 김정숙, 나카즈마 카즈오, 2013)에 의하면 한국인 남편의 정서적 커미트먼트만이 가족관계 지속 의사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애착이 깊을수록 아내와 함께 하는 행동이 많을수록 남편의 가족관계 지속의사가 높아지므로 한국인 남편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부부간의 동반 행동은 가족관계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가족의 남편과 아내 부부 100쌍을 설문조사한 또 다른 연구(성현란, 2011)에서는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와 낮은 문화적 감수성은 아내 문화수용을 낮춤으로써 결혼이주여성의 결혼 만족과 삶의 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노충래, 강현주, 최민지, 2010)에 의하면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는 베트남 출신 아내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는 결혼이주여성인 아내의 짧은 한국 거주기간, 아내와 시댁(친정)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강력한 주요요인이었고, 그리고 남편 자신의 부부갈등이 낮을수록, 공동영역의 갈등은 오히려 높을수록, 남편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다른 연구(박인아, 윤정수, 박지선, 김정숙, 나카지마 카즈오, 2012)에서는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지역사회 또는 가족이나 아내와의 갈등 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사용하여 결혼이주여성과 남편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설동훈, 이계승, 2011)에서는 여성이민자의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오히려 이혼의향이 높으며, 한국인 남편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남편의 이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체 이혼에서 외국인과의 이혼 소위 다문화결혼의 이혼은 1만 9백건으로 전체 이혼의 약 9.5%를 차지하며 이 중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와의 이혼이 7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다문화 이혼에서 재혼자의 이혼율에 대한 통계 보고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재혼가정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연구(Bumpass & Raley,

2007)들로 미루어볼 때 다문화결혼이 재혼일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혼 후 재혼 가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혼가족의 성공적 적응을 돕기 위한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해 많지 않으며(한경혜, 1998), 재혼가족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임춘희, 2006) 이외에 재혼 당사자들이 재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나 재혼 부부관계의 역동을 심층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다문화가족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결혼의 안정성과 행, 불행을 좌우하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인 남편의 경험을 밝히는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다문화결혼에서 재혼의 비중이 일반 내국인 결혼에서 보다 더 높은 현실에서 결혼안정성이 취약할 수 있는 재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선행연구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에 대한 연구들은 남편의 행동이 결혼이주여성 아내와의 관계와 결혼만족도나 이혼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결혼생활의 유지 혹은 단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전제하면서 이주여성 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 자신이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 구성이 부부관계의 역동을 비롯하여 다문화 결혼생활의 안정과 만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결혼이주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현재 다문화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 다문화가족에서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현재 재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재혼으로서의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최근에는 다문화가족 연구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한국인 남편의 관점과 인식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나아가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의 다문화결혼을 위한 적응노력과 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연구에 일조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참여자는 본인이 재혼 또는 삼혼으로 이주여성과 결혼하여 현재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국인 남성들이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을 통해 재혼하여 결혼생활에 만족감이 높으며 부부사이가 좋은 부부를 추천받은 후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들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영업이나 택시기사, 퇴직자 등으로 연령은 40대가 1명, 50대가 4명 그리고 60대가 1명이다.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의 전혼자녀가 있었다. 참여자 남성의 학력수준은 대졸자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졸의 학력이며 직업이나 생활수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중간 혹은 중하에 해당하는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에서 질적인 표본 추출을 위해 적절성과 충분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

다는 점(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을 고려하여 연구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다양한 재혼 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인 남편들을 선정하였다. 참여자들에 대한 면접은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1회당 평균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자에 따라 1회에서 2회 정도 면접하였으며 시작 전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녹음하였다. 면접은 참여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찻집이나 때로는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며 면접이 끝난 이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하여 확인하고 보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본인이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편의 개인적, 가족적 관련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연구참여자들은 비밀보장을 위해 익명으로 A씨, B씨, C씨...등으로 표시하였다. 여섯 명의 참여자들은 모두 이혼 후 재혼한 경우였으며, 네 명의 참여자들은 현재 다문화결혼이 재혼이었는데 이 중 E씨와 F씨 두 명은 삼혼이었다. 그리고 E씨 배우자는 초혼의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이었으며 F씨의 배우자는 자신도 재혼인 중국 이주여성이었다. 총 여섯 명의 참여자들 가운데 본인이 재혼하여 결혼이주여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경우는 A씨, B씨, C씨의 세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전혼의 친자녀가 있었으며 초혼의 이주여성과 재혼한 이후 다시 자녀를 두었다. 특히 B씨의 경우는 이미 전혼에서 단산수술을 하였으나 재혼 후 복원수술을 하여 자녀를 가졌다. 배우자인 이주여성이 초혼인데 자녀가 없는 E씨의 경우는 자녀를 원했으나 배우자인

표 1. 연구참여자인 재혼한 한국인 남성의 개인적, 가족적 배경

참여자	직업	학력	아내 출신국/학력	결혼 기간	아내의 직업	결혼 경력	아내의 결혼 지위	이혼 사유	전혼 자녀	현재 자녀	결혼 경로
A씨 (57세)	자영업 (가구)	대졸	필리핀(26세) /대학 1년 수료	6년	영어 강사	이혼 후 재혼	초혼	부인 외도	아들(30), 딸(29) (따로 거주)	아들 한 명 (5세)	결혼 정보업체 (필리핀 여성이 운영)
B씨 (47세)	건축업 (석공일)	고졸	필리핀(34세) /대학 1년 수료	5년	영어 강사	이혼 후 재혼	초혼	부인 외도	아들 2명 (중1, 중3) 함께 거주	아들 한 명 (4세) 정관수술 복원	결혼 정보업체
C씨 (56세)	어린이집 기사	고졸	베트남(29세) /통번역. 중졸 /한국에서 야간대학 재학	9년	통역	이혼 후 재혼	초혼	부인 외도	딸 2명 (25, 23세 따로 살고 있음)	아들 1명 (9세), 딸 1명, (5세)	결혼 정보업체
D씨 (53세)	화물트럭 기사	고졸	중국한족 (40세/고졸 /한족)	4년	공장 직원	이혼 후 재혼	재혼 (딸 1년 전 한국입양 동거)	부인 외도	자녀계획 없음	딸 1 (대학1년, 친엄마한테 1년 전에 간), 아들 1명(고1)	결혼 정보업체
E씨 (61세)	퇴직 (선박운행)	고졸	우즈베키스탄 (36세. 대학2년 졸업)	4년	초등학교 강사	이혼, 사별 후 삼혼	초혼	첫 부인외도, 둘째 부인사별	무자녀 (자궁수술, 시험관자녀 시도계획)	무자녀	결혼 정보업체
F씨 (55세)	택시 기사	고졸	중국한족 (40세고졸)	2년	회사원 (휴대폰 공장)	13년 결혼생활 이혼 후 몽골여성과 재혼, 제이혼후 중국(한족) 여성과 삼혼	재혼	초혼이혼 사유는 성격차이와 경제적 문제 /재혼의 이혼 사유는 몽골여성의 외도	딸 2명 (모두 취업하여 따로 살고 있음)	없음 (아내의 중국에 있는 아들 입국계획)	주변의 소개 /외국인 근로자 중국여성/

이주여성이 임신하기 어려운 여성질환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없는 경우였다. 참여자 남성들의 현재 결혼기간은 2년에서 9년까지로 비교적 안정기에 속하며 배우자인 결혼 이주여성들은 모두 시간제나 혹은 전일제의 취업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인 남성들의 공통점으로는 모두가 한국인 여성과 첫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부인의 외도문제로 이혼하게 되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후 자녀는 참여자 남성들이 키우면서 이주여성과 재혼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세 번째 결혼인 E씨 경우도 첫 번째 부인의 외도가 있어 이혼했으며 F씨인 경우 두 번째 배우자였던 몽골출신의 이주여성이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자들 가운데 한 명(F씨)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이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러한 점들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했으며, 재

혼하기 전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였고 이혼 후 재혼 전까지 한부모 부자가정으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였다. 그리고 이주여성 아내가 초혼인 참여자들은 여성이 불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재혼 후에 다시 자녀를 두었고 고졸 학력 수준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참여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전형적인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계층에 속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그러한 계층에서 여성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만연하고 있으며 그렇게 이혼을 한 남성들 중에는 이혼 후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자가정의 책임있는 아버지들이 많으며 그러한 남성들이 다문화결혼을 재혼으로 선택한다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여섯 명의 연구참여자들을 면접하며 녹음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여 원자료로 사용하였다. 정리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먼저 아무런 제한없이 카테고리들을 설정, 검토해 보는 개방적 코딩(Strauss, 1987; 조용환, 2008에서 재인용)을 하였다. 이와 아울러 Giorgi(2009)의 현상학적인 연구절차를 부분적으로 적용하였다. 그의 현상학적 방법의 절차는 크게 전체의 인식, ‘의미단위’의 구별, 일상표현을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기, 변형

된 의미단위들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기와 같은 네 가지의 분석단계로 이루어지는데(Giorgi, 2004), ‘의미단위’는 기술된 자료를 읽는 가운데 의미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부분으로 즉, 단어나 문장이 단위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연구자의 태도에 의해 경험적으로 결정하는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따라 참여자들의 면접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를 인식하고 특히 재혼으로서 현재 결혼의 의미와 관련하여 참여자들이 특별히 강조하여 말한 내용이 의미있다고 간주한 부분의 문장을 의미단위로 하였다. 그리고 의미단위를 각각 하위주제로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하위주제들을 내용적으로 통합하여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여섯 명의 참여자들이 현재의 결혼생활에 부여하는 의미는 참여자들 각각의 결혼 및 가족상황의 맥락을 고려하면서 참여자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재혼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이 현재의 다문화결혼인 재혼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연구참여자가 각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지각하는 것이 달라서 사례별로 모두 여섯 개의 주제로 구분한 후 이를 통합하여 크게 두 개의 주제로 요약하였다.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

에 대한 두 개의 대주제는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과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주제와 의미단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2로 제시하였다.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연구참여자인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 가운데 네 사람은 현재 다문화결혼인 재혼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러한 의미의 대주제의 하나는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대주제하에 재혼의 의미는 다시 ‘삶의 활력소’, ‘일에서의 능력 발휘와 자신감’,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로 참여자별로 구분하였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사례별로 재혼의 의미를 살펴본 것은 같은 다문화 재혼이라 하더라도 참여자의 개인적, 가족적 상황마다 차이가 있으며 이처럼 다른 상황에서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재혼의 의미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삶의 활력소>

먼저 현재 이주여성과의 재혼의 의미를 ‘삶의 활력소’로 의미부여한 A씨의 경우 결혼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재혼에다가 다문화 국제결혼이라는 게... 사실 내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었어요 부도나고 이혼해서 아내도 없고 그러던 차에 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결혼

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니 내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가정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 가족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이 살아가는데서 생동감을 주지요. 아들을 보면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지요(A씨, 57세)

현재 30년의 나이차이가 나는 26세의 초혼의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A씨(57세)의 경우 자신이 키운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집을 떠난 후 혼자 지내다가 뒤늦게 재혼하여 오십이 다 된 나이에 다시 자녀를 낳아 키우는 상황임으로 결혼에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르게 긍정적이었다. 참여자는 동년배들이 노년을 맞이하는 시기에 새로운 결혼생활과 가족을 시작했다는 것에 삶의 활력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A씨의 경우 뒤늦게 자녀(아들 5세 1명)를 다시 낳아 키우면서 어린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에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존재감을 확인하면서 결혼생활을 중년기 인생에 생동감을 주는 행복한 상황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에서의 능력 발휘와 자신감>

참여자 B씨는 다문화결혼이 자신에게 갖는 가장 큰 의미로 특히 일과 관련하여 언급하였는데 결혼으로 인해 특히 자신이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능력

표 2. 재혼한 한국인 남성이 지각하는 다문화결혼으로서의 재혼의 의미

대주제	하위 주제	의미단위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인생의 활력소	재혼에다가 다문화 국제결혼이라는 게... 사실 내 생활에서 탈피하고 싶었어요 부도나고 이혼해서 아내도 없고 그러던 차에 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하고 나니 내 삶의 활력이 생기더라고요. 가정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 삶에 큰 활력소가 되었어요. 가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것 가족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것이 살아가는데서 생동감을 주지요. 아들을 보면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들지요(A씨)
	일에서의 능력 발휘와 자신감	일에 몰두를 할 수 있게 되고 내 능력 발휘를 120프로는 하게 되었고 그전에는 애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일을 줄여야 했고 내 능력도 한 70%밖에 발휘를 못했는데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 든든한 거죠(B씨)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외롭고 허무했었어요. 결혼 실패로 재혼이 간절했었어요. 재혼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이제는 외롭지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행복해요. 예전에는 쓸쓸하고 허전했는데 지금은 사는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나한테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이 좋은 거죠. 내 울타리가 생겼다는 거요. 혼자는 허전해요. 나만의 가정이 있잖아요(C씨).
	노후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	아내는 엔도르핀이죠. 싹싹하고 저녁마다 발 마사지도 해줘요. 노후 연금이죠. 나는 이제 일할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래도 젊으니까 아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도 다닐 예정이에요. 내가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노후에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E씨)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	신뢰와 소통은 부족하고 돈도 더 들어가지만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결혼	좋은 점 반 나쁜 점 반 여자가 있다는 건 좋은데 부부라고 속깊은 얘기는 못해요. 속마음은 모르니까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만 두 번째니까 다시 깰 수는 없잖아요. 다문화결혼이라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통하지도 않고 돈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걸 참아야 하는 그런 게...(D씨) 부부라고 해도 한국사람끼리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살긴 해도 조금만 잘못되면 가출해버리면 그만이고 끝나는 거니까 속마음은 좀 불안하고 아내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들지요(D씨)
	동거인에 가깝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어 사는 관계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와이프는 마누라라고 생각하기 보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룸메이트(roommate)라고나 할까.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 생각하니까 마누라가 아니고 오히려 애인같이 생각해요. 결국 결혼이란 서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윈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다는 득이 되니까 유지하는 거다. 내가 와이프를 백 프로 믿지 못하지만 현재로는 서로가 옆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니까 사는 거다. 다문화하고 결혼하면서 깨지지만 않으면 다행인거다(F씨)

발휘를 백 이십 프로는 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전에는 애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일을 줄여야 했고 내 능력도 한 70%밖에는 발휘를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도 생기고 다시 가정이 생겼다는 것이 든든한 거죠 (B씨, 47세)

재혼하기 전에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로 어린 자녀 둘을 직접 키우면서 자신이 자영하는 석공일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힘들어서 애들 때문에 일부러 일도 적게 하고 일하는 시간도 줄였던 B씨는 초혼의 필리핀 여성과 재혼하여 자신의 자녀도 계속 키우고 다시 자녀도 낳고 안정을 찾으면서 자신의 생계이면서 좋아하는 석공일에 더 몰두할 수 있게 되어 결혼의 의미를 무엇보다도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의 향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혼은 직업생활을 하면서 자녀양육의 책임까지 맡게 된 남성에게는 특히 큰 타격을 주는 인생사건이다. 이혼 후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남성으로서 손이 많이 가는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일을 줄이며 능력발휘도 할 수 없었던 B씨의 경우, 새로운 가정이 생겼다는 의미에 더하여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일에서의 능력이 결혼으로 인해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 B씨는 결혼으로 인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득이 되었고 그것이 다시 결혼생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

이혼 후 깨어진 가정생활로 힘들어하던 C씨는 현재의 다문화재혼에 대해 나만의 울타리인 가정이 다시 생긴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러한 울타리로 인해 이혼 후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재혼을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외롭고 허무했었어요. 결혼 실패로 재혼이 간절했었어요. 그리고 재혼해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이제는 외롭지가 않고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오히려 행복해요. 예전에는 쓸쓸하고 허전했는데 지금은 사는 재미가 있어요. 무엇보다 나한테 울타리가 생겼다는 것이 좋은 거죠. 혼자서 허전해요. 나만의 가정이 있잖아요(C씨, 56세)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으며 외도한 부인을 벌 줄 단순한 의도로 이혼을 신청했다가 원치 않게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된 C씨는 이혼 후 혼자서 딸 둘을 키우면서 외로움과 실패감으로 좌절하면서 한국인 여성과 재혼을 하고자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어느 날 우연히 산에 갔다가 걸린 결혼정보업체의 현수막을 보고 27년의 나이차이가 나는 초혼의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9세 아들, 5세 딸)을 두게 되었다. 원치 않았던 이혼과 이혼 후의 외로움을 겪다가 재혼에 성공하여 새로 두 명의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꾸리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C씨는 이혼 후 살아가는 힘을 회복하고 힘들어도 그래서 행복하고 사는 재미를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므

로 이러한 참여자에게는 재혼이 이혼 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다시 갖게 되고 자신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있다는 안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결혼의 의미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

다문화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부여의 대주제인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그리고 가족속의 삶’ 속에는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가 포함되었는데, 초혼의 이주여성과 결혼하여 새로 자녀를 낳은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본인과 초혼인 이주여성 둘 사이에 자녀가 없는 E씨의 경우 결혼의 의미를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었다.

아내는 엔도르핀이죠. 씹씹하고 저녁마다 발 마사지도 해줘요. 노후 연금이죠. 나는 이제 일할 나이도 아니고 이 사람은 그래도 젊으니까 아내가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도 다닐 예정이에요. 내가 지원해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노후에 확실하게 의지할 수 있으니까(E씨, 61세)

E씨는 두 번의 한국여성과의 결혼생활을 실패하고서 삼촌으로 이슬람교도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이주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자녀를 갖기를 원했으며 현재도 원하고 있으나 이주여성의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자궁근종)로 임신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무자녀의 상황이 되었다. 그러므로 부부만 생활하는 현재의 상황과 노후에도 부부만 생활할 가능성이 높

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여성들이 알라신 다음으로 떠받드는 존재가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우즈베키스탄의 여성을 선택하여 결혼하였다. 이주여성 아내와의 관계도 매우 친밀하며 만족스러워하며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고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남편을 잘 받들고 가정에만 충실한 아내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퇴직하고 노년기에 접어든 E씨의 경우 사실 연금을 받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모국에서 초급대학을 나와 현재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등 능력이 있는 아내를 지원하면서 노후에 확실한 정서적 의지대상으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의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상 노후 걱정없이 경제적 형편이 괜찮은 E씨의 경우 아내를 노후의 경제적 의지수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즉 노후의 믿을만한 배우자로 신뢰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

연구에 참여한 여섯 명의 한국인 남편 가운데 두 명은 현재 다문화결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 네 명과는 달리 소극적이며 다소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현상유지적으로 결혼을 수용하는 식으로 결혼의 의미를 지각하고 있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D씨와 F씨였으며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결혼이주여성인 부인이 모두 재혼자였으며 결혼 후 연구참여자인 한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없었다.

<신뢰와 소통이 부족하고 돈도 더 들어 가지만 다시 깨고 싶지 않은 결혼>

연구참여자 가운데 본인이 재혼하면서 배우자인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도 재혼인 경우인 D씨는 자신이 두 명의 자녀를 직접 양육하였으며 현재는 고 1인 친아들과 함께 살면서 같은 재혼인 이주여성의 전혼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 입양까지 하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두지 않았다. 결혼해서 낳은 친자녀가 없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어가 부족한 아내와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이주여성인 아내가 지나치게 중국에 있는 자기 가족만을 챙기며 집에서도 모녀간에 모국어인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D씨의 경우 결혼은 했지만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완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고 소통도 못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결혼에 대해 불만스러워도 또 다시 가정을 깰 수는 없다는 생각과 두려움으로 외형상의 부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좋은 점 반 나쁜 점 반 여자가 있다는 건 좋는데 부부라도 속 깊은 애기는 못해요. 속마음은 모르니까 아니다 싶을 때도 있지만 두 번째니까 다시 깰 수는 없잖아요. 다문화결혼이라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통하지도 않고 돈도 계속해서 많이 들어가니까 많은 걸 참아야 하는 그런 게... 부부라고 해도 한국사람 부부라면 갖는 그런 게 없어요. 같이 살긴 해도 조금만 잘못되면 가출해버리면 그만 끝나는 거니까 속마음은 좀 불안하고 아내를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힘들지요(D씨, 53세)

D씨는 현재 중국인 아내와 한국어로 깊은 대화를 주고받는 식의 소통은 잘 안되지만 기본적인 일상적인 대화는 하면서 주말에는 반드시 함께 낚시를 가는 식으로 나름대로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예상과는 달리 결혼한 이후에도 이주여성인 아내가 계속해서 친절방문을 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다문화결혼이 결코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드는 결혼이 아니며, 자신과 마찬가지로 재혼인 이주여성과의 결혼이 중국의 친자녀 문제를 비롯하여 현실적으로 치루어야 할 비용은 많고 정서적 유대감은 적은 결혼이라는 점을 점차 절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본인과 같은 형편과 처지에서 재혼이 쉽지 않다는 인식과 다시는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으로 타협하는 선에서 현재의 결혼에 대해 매우 만족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 현재 재혼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동거인에 가깝지만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어 사는 관계>

D씨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인 이주여성이 재혼이며 본인은 삼혼인 F씨의 경우 한국인 부인과의 첫 번째 이혼 후에 몽골 출신의 이주여성과 재혼하고 다시 이주여성의 외도로 재이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과거 자신이 결혼이나 배우자에 대해 가졌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터득하고 있었다. 즉, 결혼이란 어떤 식으로든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한 유지할 수 있는 관계로 보며 마음을 비우

며 결혼생활이나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 놓고 있었다.

이제는 마누라도 자식도 내 것이 아니다. 지금 와이프는 마누라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사회생활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요. ‘룸메이트(room mate)’라고나 할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누라가 아니고 오히려 애인같이 생각하는 거죠.

결국 결혼이란 서로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윈윈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서로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다는 득이 되니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혼자 살 때 보다 집에 오면 같이 얘기할 사람이라도 있고 혼자 자는 것보다는 둘이 자는 것이 더 좋으니까. 내가 와이프를 백 프로 믿지 못하지만 현재로는 서로가 옆에서 살면서 조금이라도 득이 되니까 사는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자가 혼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가 있는 것이... 다문화하고 결혼하면서 깨이지만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며 사는 거죠(F씨, 55세)

결혼이주여성과는 두 번째 결혼을 한 F씨는 세 번의 결혼을 거치면서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곧 자신에게 속하며 자신의 소유라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의식을 완전히 버리는 통찰을 하게 된다. 배우자에 대한 많은 기대도 놓아 버리고 최소한 자신의 옆에서 배우자 자리를 채워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결혼해서 이득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내국인끼리의 결혼도 그렇지만 다문화결혼의 경우 교환론적인 성격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인 부인과의 첫 이혼과 이주여성의 외도로 두 번째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F씨의 결혼에 대한 기대는 결혼이 깨지지 않고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라는 지점까지 최소화하게 된다. F씨는 과거 자신이 고수했던 가장으로서 혹은 남편으로서의 권위나 자존심,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로 생각했던 전통적인 가족의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실을 비로소 파악하게 되면서 현재 결혼이 그나마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측면으로 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 결과 결혼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지각하는 결혼 곧 재혼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요약된다. 즉,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의 의미를 크게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과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보고 있었다. 첫 번째 결혼 의미의 주제는 참여자들이 현재의 다문화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만족해하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두 번째 주제의 결혼의 의미는 참여자들이 현재의 다문화결혼생활에 대해 깊이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상유지적인 수준에서 결혼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문화 결혼으로 재혼에 대한 한국인 남편

들의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이 이혼 후 독신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해 신체적, 정서적 안녕감이 높다(Durpe & Meadows, 2007; Hughes & Waite, 2009)거나 재혼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온다(Williams & Umberson, 2004)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들이 지각하는 결혼에 대해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과 같이 보다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A씨와 B씨 C씨, 그리고 E씨의 경우로, 어쩔 수 없이 현재 결혼에서 자녀가 없는 E씨는 예외로 한다면 모두 원래 전혼에서 자녀들이 있으며 이혼 후 부자가정으로 자신들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하였으며 재혼 후 초혼의 이주여성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재혼 후 다시 자녀를 둔 한국인 남편의 경우,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이주여성과의 결혼한 것에 대한 주변이나 사회의 불편한 시선과는 달리 남성의 내부자적 관점에서는 이주여성과의 다문화결혼은 외롭고 힘든 중년기 인생에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 또한 ‘일에서의 능력발휘와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이혼 후 다시 생긴 울타리’가 생긴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아울러 자신보다 젊고 유능해 보이는 이주여성 아내에 대해 ‘노후의 의지대상인 아내의 존재’로서 아내에 대해 자부심과 든든함을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인 남편들의 이주여성과의 결혼적응을 ‘고단한 염부가 멀리 바닷물을 걸어 바람과 햇빛 그리고 땀의 조화

로 내 밭에서 소금꽃을 피우는’ 과정에 비유(강향숙 등, 2013)하였는데 본 연구의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도 다문화결혼에 대해 생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은 것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다문화결혼으로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현재와 추후에 당면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 생활의 어려움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좋은 대처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주여성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이 2년에서 9년까지로 안정화되었으며 아내들이 시간제나 혹은 전일제로 취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결혼한 지 적어도 2년 이상이 되고 재혼 후 그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인 남편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다문화결혼인 재혼이 과거 이혼으로 인한 상실감과 실패감, 좌절감을 보상해주고 인생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아주며 자신의 친자녀가 다시 생김으로써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이루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주여성 아내가 자신과 같은 재혼자인 경우로 재혼해서 낳은 자녀가 없는 재혼한 한국인 남편은 다문화결혼으로서의 재혼에 대해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만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라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면서도 어찌면 다소 체념적인 성격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결혼에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참여자들(D씨와 F씨)의 공통점은 본인처럼 재혼인 이주여성과의 사이에 친자녀가 없으며 재혼이 이주성분의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자

신의 자녀로 입양하거나(D씨) 혹은 조만간 중국에서 한국으로 데려와 자신의 집에서 키울 계획을 하고 있는 경우(F씨)로 이들은 결혼생활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비교적 결혼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주여성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가 없으며 부부 서로가 재혼으로 새로 자녀를 갖기를 원치 않고, 자녀보다도 배우자의 존재를 필요로 했던 그리고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경우 한국인 남편들 입장에서는 부부로서 혹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나 연결감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 남편 본인도 재혼 혹은 삼혼이지만 배우자가 되는 이주여성이 이미 한 번 결혼해서 자기 나라에 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의 목적이 초혼의 여성에 비해 더 자기이익 추구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한국인 남편들은 결혼은 했지만 이주여성인 배우자를 신뢰하기 어려워하며 한국말로도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다는 점에서 내심 실망하고 결혼생활에 대한 많은 기대를 포기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자신의 자녀를 직접 키울 만큼 자녀나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많은 한국인 남편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혼자가 아닌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득, 독신생활을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 또 다시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두려움 등이 뒤섞여 결혼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진짜 부부’ 같은 신뢰와 소통이 없다고 해도 동거인 수준의 배우자의 존재 자체에 만족하며 현재의 다문화결혼이 최소한이나마 자신에게 득이 되는 관계로 의미를 두고 있었다. 이는

국제결혼한 남성들에 대한 선행 연구(강향숙 등, 2013)에서 한국인 남편들이 이주여성 아내에 대해 ‘내 발에서 함께 소금을 만들어줄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긍정적인 의미부여라 할 수 있다.

다문화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이 이혼이나 별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격 차이로 인한 것이 가장 많다(여성가족부, 2013.2.26)고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성격 차이갈등으로 인한 결혼해체는 내국인간의 이혼사유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국내 결혼시장에서 재혼의 어려움을 절감하고 재혼을 통해 ‘생의 의미와 활력’을 되찾고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을 느끼는 참여자 남성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통해 그러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혼 중에서도 초혼의 이주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한국인 남편이라면 재혼에 대해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면서 결혼이 재해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같은 재혼가족이라 해도 배우자 여성이 초혼인가 재혼인가에 따라 그 특징이 다르다는 것이 다문화결혼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이 전혼자녀가 있는 재혼이라 하더라도 배우자 여성이 초혼이고 자녀를 출산한다면 그러한 경우 남편의 친자녀와 새 배우자 간의 관계와 자녀들 간의 형제관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부부사이에는 초혼과 같은 안정감과 가족으로서의 유대와 결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둘 다 각자 전혼자녀가 있으면서 재혼한 후 두 사람 사이에 친자녀가

없다면 부부로서 혹은 가족으로서의 연결감과 유대감을 갖기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부 양측이 재혼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없는 경우 이미 출발부터 각자의 손익을 고려하면서 결혼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남녀 둘 다 초혼이나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초혼인 경우에 비해서는 각자의 이해타산에 맞는 보다 교환론적인 성격의 결혼이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순수하게 부부 두 사람의 애정관계에 따라 결혼의 성패가 좌우되므로 결혼 즉 재혼의 안정성이 위협받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끼리 오랜 결혼생활을 한 부부처럼 속 깊은 이야기를 터놓는 정서적 친밀감은 없다고 해도 중년기에 이혼 후 재혼의 어려움을 경험한 한국인 남성로서는 이주여성인 아내의 존재만으로도 만족하는 의미부여를 할 때 문화차이나 소통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대처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자인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현재 결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결혼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들이 최소 2년부터 9년까지 결혼을 유지해오고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듯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결혼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는 사실은 다문화결혼 혹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오늘날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야 무언가 제대로 된 결혼, 정상적인 결혼, 행복한 결혼일 것이라는 암묵적인 가정이 만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결혼 전에 열정이나 친밀감과 같은 사랑의 요소(로버트 스티븐버그, 2003)가 결여된 다문화결혼은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 배우자와의 사랑없이 단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로의 입장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경제적 형편이 더 나은 나라의 남성들은 자국 여성들에게서는 선택받기 어려운 결혼 대신 저렴한 결혼비용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신속하게 배우자를 고를 수 있는 방법으로 폄하되며 결혼의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그러나 올리히 벡과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11)의 지적처럼 소위 애정에 의한 결혼이 순전히 사랑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신화이며 낭만적 사랑이 결혼의 전제여야 한다는 서구중심적 가치관을 당연시하는 태도가 다문화결혼을 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애정중심주의 결혼에 대한 이상주의적인 가치관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결혼의 성격이 매우 물질주의적이며 교환론적 성격이 강하다. 실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도 많은 점을 생각하면 결혼 전 사랑의 유무 보다는 결혼 후에 부부가 애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결혼이라 하더라도 한국인 남편이 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결혼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며 이러한 점에 대해 다문

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성에게 대한 사회적 시선과 관심이 보다 수용적이며 지지적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참여자인 한국인 남편들이 재혼으로서의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긍정적인 의미는 한국인 남성들의 생애 발달의 단계와 관련하여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인 남성들은 대부분 30대 후반과 40대 중반에 이혼을 경험하였다. 그것도 아내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이었다. 이혼은 여성 못지않게 중년기 남성들에게도 위기적인 사건이며 특히 남성에게 있어 부인의 외도로 이혼했다는 사실은 남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며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깊은 자괴감과 좌절감을 주는 고통을 준다. 특히 사회적, 교육적 배경에서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남성은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을 내면화하고 고수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주는 것을 가장이자 남편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중년의 남성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충격은 더욱 크며, 외도한 아내에게 자녀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이혼 후 자녀들도 자신이 직접 키우는 양육 책임까지 떠맡는다. 이러한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키우는 수년 동안은 재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생의 반환점에 들어서게 되는 중년기에 접어들수록 대니얼 레빈슨(2012)이 말했듯이 남성들은 자아의 내부에서 그리고 자아와 외부세계와의 사이에서 심한 갈등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대니얼 레빈슨(2012)의 설명을 적용한다면 이혼 후 재혼을 결심하게 되는 한국인 남편들은 중년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기존의 자신의 인생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구조를 창조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다문화결혼을 재혼으로 선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초혼의 이주여성과 재혼한 한국인 남성들은 늦은 나이에 자녀를 다시 낳고 키우면서 재혼 전 침체되어 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가정과 일의 영역에서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존재로서의 자신감을 회복하며 중년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전망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결혼을 재혼으로 선택한 한국인 남편들에게 있어 재혼은 황량하고 외로운 인생 중반기에 삶의 의욕과 용기, 희망을 갖게 하는 매우 긍정적인 인생사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측면에서 다문화결혼은 한국 사회에서는 인생의 실패자로 간주되어 재혼하기도 쉽지 않은 남성들에게 인생의 돌파구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다문화결혼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둔 중요한 가정의 지위로 복귀할 수 있으며, 또한 이주여성의 가족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잘 사는 나라인 한국으로의 입장권을 획득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많은 외부자적인 관점의 양적 접근의 연구들이 주로 문제지향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사회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요인이 다문화결혼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김민경, 2012;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박인아 등, 2012; 설동훈,

이계승, 2011). 그러나 이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인 다문화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재혼한 한국인 남성들이 다문화결혼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한 본 연구의 결과에 나타난 한국인 남편들의 다문화 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다문화결혼의 안정적인 유지와 가족건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이주여성의 국적에 따른 문화적 차이, 언어소통상의 어려움 혹은 성격차이, 혹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다문화가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특히 그러한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서 한국인 남편은 마치 대부분이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가부장적이며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나 선입견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본 연구에서 보듯이 다문화결혼의 주체인 한국인 남편들은 비록 경제적 비용과 심리적 부담이 많이 드는 한국여성과의 결혼 대신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재혼상대로 결혼이주여성을 택하였지만 그러한 재혼을 선택하기까지 개인적, 가족적인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고 재혼 이후에도 다문화결혼이 주는 작은 이득이라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식으로 결혼에 의미를 부여하며 결혼생활에 적응하면서 책임감을 가지려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재혼한 한국인 남성은 재혼으로서의 결혼에 대해 ‘인생 중반기에 되찾은 생의 의미와 활력, 그리고 가족속의 삶’ 그리고 ‘진짜 부부같이 통하지는 않지

만 아내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만족하는 관계’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문화재혼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는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이 다문화가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결혼이주여성과의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나름대로 다문화결혼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문화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므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적응노력에 대해 사회적으로 지지해주며 결혼이주여성과의 결혼한 한국인 남편에 대해 문제시하거나 폄하하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이혼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다문화부부의 이혼이나 어려움과 이슈에 초점을 두는 문제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이혼하지 않고도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을 강조하며 그러한 다문화가족의 성원인 한국인 남편이나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이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다. 즉, 다문화가족의 건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초혼의 핵가족을 가장 정상시하여 재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호의적이지는 않으며 다문화결혼에 대해서도 여전히 예외적인 결혼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주여성과의 재혼하여 다문화가족을 이룬 한국인 남편들은 부지부식간에 재혼과 다문화결혼에 대한 이중적인 편견을 받는 가운데 다문화 재혼생활을 위한 문화적 지침이나 안내, 정보도 없이 고군분투하

며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결혼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재혼한 다문화가족의 남편들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대처행동과 재혼 다문화가족의 건강성과 탄력성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추후로 다문화가족 연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통계적인 조사대상으로 물화하여 외부자적 관점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특히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한국인 남편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적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그리고 다문화가족으로서 느끼는 행복과 같은 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내부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들도 현재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혼 다문화가족에도 여전히 내재해있는 문화차이나 역할기대와 분담으로 인한 갈등, 확대가족과의 갈등 해결이 중요하므로 다문화 부부의 부부관계를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단위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연구에 참여한 재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최소한 2년 이상 현재 다문화가족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문화결혼생활에 스스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주변의 사람들 또한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부부로 인정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40, 50대의 중년으로 대부분 고졸 정도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중간계층의 남성들이었다. 그러므로 현재 결혼생활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이혼을 고려할 정도로 결혼갈등을 겪는 한국인 남편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만일 현재 다문화결혼에 갈등을 느끼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면 연구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의 의도 자체가 다문화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결혼 초기를 넘기고 현재 안정적이고 나름대로 만족한 다문화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재혼한 한국인 남편의 경우에 적용된다. 그리고 연구자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이주여성이 재혼인 경우가 초혼인 경우보다 수적으로 적었으므로 이주여성 자신도 재혼이면서 자신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이 포함되었다면 재혼한 한국인 남편이 느끼는 결혼의 의미 내용이 좀 더 다양하게 밝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향숙, 진은영, 마닥마, 배은경 (2013). 국제결혼 남성배우자의 결혼적응에 관한 생애사 연구: 소금꽃이 피기까지. 한국가족복지학, 18(3), 225-244.
- 김계하, 선정주, 오숙희 (2013).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스트레스, 자존감 및 무력감.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4(1), 29-39.
- 김민경 (2012).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일

- 상 갈등과 일상만족과의 관계 -가족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3), 173-186.
- 김혜신, 김경신 (2011). 결혼이주여성과의 한국인 남성부부의 가족건강성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2), 59-86.
- 노충래, 강현주, 최민지 (2010).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한 한국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0, 105-134.
- 대니얼 레빈슨 (2012). 남자가 겪는 인생의 사계절. 김애순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본발간일, 1978)
- 로버트 스티버그 (2003). 사랑의 심리학. 최연실, 고선주 (역). 도서출판 하우. (원본발간일, 1978)
- 박인아, 윤정수, 박지선, 김정숙, 나카지마 카즈오 (2012).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인자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51(2), 129-158.
- 설동훈, 이계승 (2011).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지역사회학, 13(1), 117-147.
-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구경북지역 다문화 가정.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2), 219-239.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안전행정부 (2013.7.2.) 외국인주민수 144만 5천명, 주민등록인구대비 2.8%[보도자료].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29783 에서 10월 8일 인출.
- 엄명용 (2010). 결혼이민여성의 한국인 남편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4), 261-298.
- 여성가족부 (2013.2.26.). 지난 3년간 다문화가족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 진전- 결혼초기 해체 감소, 한국어능력 향상, 고용률 증가, 빈곤 완화, -이혼·사별 비율(15.3%p 감소), 여성 고용률(16.1%p 증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17.8%p 감소)-[보도자료]. 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tPage=2&key_type=&key=다문화&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0622 에서 8월 5일 인출.
-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2012). 장거리 사랑. 이재원, 홍찬숙 (역). 서울: 새물결. (원본발간일, 2011).
- 윤경자, 김정옥, 현은민, 전영자, 유계숙, 김은경 (2009). 건강가정론. 경기도: 공동체.
- 이근무, 김진숙 (2009). 국제 결혼한 남성들의 생애사 연구: 7인의 새로운 디아스포라(neo-diaspora) 이야기. 한국사회복지학, 61(1), 135-162.
- 임춘희 (2006). 재혼가족 청소년의 친부모관계와 새부모관계에 대한 연구: 재혼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재혼가족신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3), 79-102.
- 정영조, 박지선, 윤정수, 김정숙, 나카즈마 카즈오 (2013). 다문화가족 한국인 남편의 결혼생활 커미트먼트와 가족관계 지속의

- 사의 관계. 민족연구, 55, 148-163.
- 정현숙, 유계숙 (2005).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조용환 (2008).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지영 (2009).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남편으로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 225-254.
- 통계청 (2013.4.23.). 혼인이혼통계[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286676&pageNo=18&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8월 23일 인출.
- 통계청 (2013.11.21). 2012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보도자료].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10247&pageNo=6&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12월 1일 인출.
- 한경혜 (1998). 이혼 후 재혼가족의 적응. 인간발달연구, 5(1), 234-267.
- Amato, P., & Rogers, S. J.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marital problems and subsequent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3), 612-624.
- Baxter, L. A. (2010). The dialogue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2, 370-387.
- Bernard, J. (1973). *The future of marriage*. NY: Bantam.
- Breger, R., & Hill, R (1998). Introducing mixed marriages. In R. Breger & R. Hill (Eds.), *Cross cultural marriage: Identity and choice* (pp. 129-152). Oxford, U.K.: Berg.
- Bruner, J. (1990). *Acts of mean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umpass, L., & Raley, K. (2007). Measuring separation and divorce. In S. L. Hofferth & L. M. Casper (Eds.), *Handbook of measurement issue in family research* (pp. 125-143). Mahwah, NJ; Erlbaum.
- Durpe, M. E., & Meadows, S. O. (2007). Disaggregating the effects of marital trajectories on health. *Journal of Family Issues*, 28, 623-652.
-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김미영,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원본발간일, 1985)
- Giorgi, A. (2009).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 Gottman, J. M. (1994). *What predicts divorce?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Erlbaum.
- Harvey, J. H., Weber, A. L., & Orbach, T. L. (1990). *Interpersonal accounts: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Basic Blackwell.
- Heller, P. E., & Wood, B. (2000). The influence of religious and ethnic differences on marital intimacy: Inter marriage versus intra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Therapy*, 26, 241-252.
- Ho, M. K. (1990). *Intermarried couples in therapy*. Springfield, IL: Thomas.
- Hughes, M. E., & Waite, L. J. (2009). Marital biography and health at mid-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0, 344-358.

- Skolnick, A. (2009). The life course revolution. In A. S. Skolnick & J. H. Skolnick (Eds.), *Family in transition* (15th ed., pp. 31-40). Boston: Allyn & Bacon Pub.
- Timmer, S. G., & Orbuch, T. L. (2001). The links between premarital parenthood, meaning of marriage, and marital outcomes. *Family Relations*, 50, 178-185.
- Whitton, S. W., Stanley, S. M., Markman. H. J., & Johnson. C. A. (2013). Attitude toward divorce, commitment, and divorce proness in first marriages and re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5, 276-287.
- Williams, K., & Umberson, D. (2004). Marital status, marital transitions, and health: A gendered life course perspectiv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5, 81-98.
- 1 차원고접수 : 2014. 01. 15.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2.
최종게재결정 : 2014. 03. 04.

A Study on the Meaning of Remarriage as Perceived by Remarried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Lim, Choon-Hee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of marriage as perceived by remarried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6 Korean men who remarried immigrant women from foreign countries (China, The Philippines, Vietnam and Uzbekistan) were interviewed and the data thus collected were analyzed by means of qualitative method including open coding and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marriage as perceived by remarried Korean husbands in multicultural families could be categorized as follows: 'the meaning and vitality of life and restarting family life in midlife', 'relationship gaining benefit just existing only as a partner without trust and communication'. These positive meanings of marriage could be important motivations to maintain stable and satisfactory multicultural families from the position of remarried Korean husbands.

Keywords : the meaning of remarriage, remarried Korean husbands, multicultural remarriage, multicultural family